

## 국어 보문의 제약 연구\*

방 성 원  
(경희대학교)

Bang, Seong-Won. 2001. A Study on the Constraints of Sentential Complement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18, 49-65.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traints of complement sentences in Korean. Some complement-taking predicates may restrict the tense on the complement. Also the mood of the complement has to be correspondent with the complement-taking predicates. A constraint on the co-reference of the complement subject is due to the mood of the complement ([imperative], [proposal], [promissory]) and the lexical meaning of the complement-taking predicates (e.g. 'kyeolsimha-').

###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국어의 보문이 서술어의 절 논항으로서 갖게 되는 제약에 대하여 논의한다. 보문의 제약은 서술어가 갖는 특정한 어휘 의미와 관련이 깊다. 여기에서는 국어 보문의 제약 중에서 시제 및 서법 제약과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 양상을 유형화하여, 이들 제약이 보문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관련되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2장에서 보문의 시제가 보문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고, 보문 시제가 제약되는 경우에는 상위문 시제와의 선후 관계에 따라 제약의 유형을 분류한다. 3장에서는 보문의 서법 유형과 상위 서술어의 의미간에 존재하는 결합 제약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보문 내의 주어가 상위문의 구성 성분과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 지시 제약의 양상을 유형화한다.

### 2. 보문 시제의 제약

보문의 시제는 상위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위 서술어의 의미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문의

---

\* 이 논문은 방성원(2001)의 학위 논문 중에서 4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시제가 상위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문 시제와 보문 시제 사이의 선후 관계를 따져 볼 수 있다.

우선, 상위 서술어에 따라 제약되는 보문의 시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상으로 삼는 시제는 절대적 시제가 아니라 상대적 시제임을 밝혀 둔다.<sup>1)</sup> 다음 예에서 보듯이 보문의 절대적 시제는 문장의 의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갈 거라고 말했다.

(1)의 예에서 상위문 시제가 과거이므로 밀출친 보문의 상대적 시제는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문장만으로 보문의 절대적 시제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철수가 학교에 가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보문의 시제는 과거이지만, ‘철수가 학교에 가는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문 내용의 사건이 실현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장의 해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보문에 시제 표시가 반영된 상대적 시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보문의 시제 제약은 다음 예와 같이 보문의 상대적 시제, 곧 형태적으로 드러난 보문 내 시제의 표시가 상위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sup>2)</sup>

(2) 나는 서영이에게 제주도가 {좋았다고/좋다고/좋겠다고} 말했다.

(3) ㄱ. 나는 서영이에게 자전거를 {사 주겠다고/사 준다고/\*사 주었다고} 약속했다.

ㄴ. 나는 방만하게 {생활한??생활하는/\*생활할} 것을 후회한다.

ㄷ. 어제부터 {논문 쓰는/\*논문 쓴/\*논문 쓸}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의 예에서 ‘말하다’의 보문에는 시제의 제약이 없다. 반면, (3)의 예문들에서는 보문의 시제가 상위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제약된다. 이러한 제약은 보문의 내용이 상위 서술어의 시간 지시와 필연적인 관련을 맺고 있

1 상대적 시제, 절대적 시제의 개념은 남기심(1978: 46~47)을 참조할 것.

2 Noonan(1985: 92~100)에서는 보문의 해석 양상이 상위 서술어의 정보에 의존적이라고 보고, 의존성의 종류로 (i) 시간 지시 의존성, (ii) 진리 값(인식론적) 의존성, (iii) 담화 의존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 시간 지시 의존성은 보문의 시간 지시가 상위 서술어 의미의 필연적 결과일 때 보문이 결정된 시간 지시(DTR: determined time reference)를 가짐을 주목한 것이다. 이에 비해 보문의 시제가 상위 서술어와 독립적인 경우는 독립적 시간 지시(ITR: independent time reference)를 갖는 것으로 본다.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문의 시제가 상위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제약되는 경우에는 보문과 상위문 시제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다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3ㄱ)은 보문의 시제가 상위문의 시제보다 후행해야 한다.<sup>3)</sup> 상위 서술어 ‘약속하다’가 ‘미래의 사건’을 내용으로 삼는 어휘적 특성을 가지므로, ‘약속하다’가 취하는 보문에는 과거 시제가 쓰일 수 없고 현재형의 선어말어미 ‘-ㄴ/는-’이 결합한 경우에도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로 해석된다. (3ㄴ)의 경우는 보문의 시제가 상위문의 시제에 선행해야 한다. 이는 상위 서술어 ‘후회하다’가 ‘지나간 사건’을 내용으로 삼기 때문이므로, 보문의 시제는 상위문 시제에 비해 지난 시간을 지시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 (3ㄴ)의 예에서는 보문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에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시제 제약은 보문 시제와 상위문 시제간의 선후 관계로 제약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위문 시제가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4) 너는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걸 곧 후회하게 될 거다.

(4)의 예에서 보문의 시제는 현재이지만, 상위문의 시제가 미래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므로 결국 보문의 시제는 상위문의 시제에 선행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문의 시제 표시가 과거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의 문장은 성립된다.

한편, 위의 (3ㄷ)의 예에서는 보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제한된다. 이는 상위 서술어 ‘시작하다’가 서술어의 사건시를 시작점으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하다’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언제나 상위문의 사건시와 동시인 현재 시제로 나타나야 한다.

이와 같이 보문의 시제가 보문을 취하는 상위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제약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일차 기준으로 하고, 제약되는 경우에는 다시 보문의 사건시와 상위문의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좀 더 자세히 분류한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4)</sup>

3 장석진(1987: 322)에서는 화행동사의 시제 제약을 발화시(T)와 명제의 사건시(t) 간의 선행관계로 명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약속하다, 명령하다, 요청하다, 제안하다, 금하다’의 시제는 ‘T<t (T가 t에 선행)’로 표시된다.

4 물론 이러한 분류가 정확하게 언어 현실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질적으로 국어의 시제 표시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시제의 형태는 의미적으로 미래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상위문시<보문시’와 ‘보문시<상위문시’의 구분은 ‘상위문시≤보문시’와 ‘보문시≤상위문시’

<표> 보문의 시제와 상위 서술어의 상관성

보문 시제의 제약	시제의 선후 관계	상위 서술어
독립적 시제	제약 없음	이야기하다, 말하다, 떠들다, 증얼거리다, 지껄이다, 외치다, 소개하다, 발표하다, 보고하다, 단언하다, 덧붙이다, 강조하다, 대답하다, 전화하다, 자랑하다, 주장하다, 기록하다, 적다, 밝히다, 설명하다, 듣다, 해석하다, 알리다, 궁금하다, 묻다, 연구하다, 알다, 모른다, 믿다, 확신하다, 살피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여기다, 걱정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바라다, 기대하다, 원하다
의존적 시제	상위문시 <보문시	주문하다, 요구하다, 강요하다, 협박하다, 지시하다, 시키다, 충고하다, 약속하다, 설득하다, 허락하다, 승낙하다, 명령하다, 경고하다, 재촉하다, 충고하다, 의논하다, 청하다, 제안하다, 조르다, 간청하다, 권하다, 부탁하다, 계획하다, 걱정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기다리다
	상위문시 ≤보문시	달래다, 금지하다, 금하다, 막다, 시도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보문시 <상위문시	후회하다
	보문시 ≤상위문시	깨닫다, 조사하다, 규명하다, 발견하다, 드러나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욕하다, 원망하다, 나무라다, 비판하다, 비난하다, 따지다, 폭로하다, 털어놓다, 해명하다, 고발하다, 인정하다, 확인하다, 불평하다, 감사하다, 실망하다, 놀랍다
	보문시 =상위문시	시작하다, 계속하다, 그치다, 그만두다, 성공하다, 실패하다, 찬성하다, 반대하다, 바람직하다, 마땅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쉽다, 어렵다, 충분하다, 알맞다, 적당하다

- ※ 상위문시 <보문시 :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보다 후행하는 경우.
- 상위문시 ≤보문시 :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 시점에서 현재 시제이거나 사건시보다 후행하는 경우.
- 보문시 <상위문시 :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보다 선행하는 경우.
- 보문시 ≤상위문시 :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보다 선행하거나 현재 시제인 경우.
- 보문시 = 상위문시 :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 시점에서 현재 시제로 제한되는 경우.

위의 표에서 보문 시제가 독립적 시제인 경우, 곧 상위 서술어의 종류에 제

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의미적으로는 세밀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앞서 (2)의 예에서 본 바 있다. [서술], [의문]의 보문을 취하는 발화 동사, 사유 동사, 인지 동사, 소망 동사<sup>5)</sup> 등과 ‘확실하다, 분명하다’ 등의 판단 형용사 등이 취하는 보문들은 보문 시제의 제약이 없다.

이와 달리 보문 시제가 의존적 시제인 경우, 곧 상위 서술어의 의미 때문에 보문의 시제가 제약을 받는 경우는 보문과 상위문 시제의 선후 관계 제약에 따라 세분된다.

먼저,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보다 후행하는 경우(상위문시<보문시)는 보문의 시제 제약이 서술어의 어휘 의미로 인해 필연적인 제약을 갖는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앞서 (37)에서 ‘약속하다’의 보문이 미래의 의미로 제약됨을 본 바 있다. [약속] 외에도 [명령], [청유], [허락] 등 청자에게 미래의 행동을 촉구하는 발화 동사들과 미래의 사태를 함의하는 ‘결정하다’류의 사유 동사가 취하는 보문이 이에 해당한다.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 시점에서 현재 시제이거나 사건시보다 후행하는 경우(상위문시≤보문시)는 개별 동사가 취하는 보문마다 제약이 조금씩 다르다. ‘달래다, 금지하다, 금하다, 막다, 시도하다’ 등은 다음 (5)의 예에서 보듯이 ‘-을’ 논항의 명사절 보문을 취할 때는 보문 시제가 현재 시제로 제약되고, 부사절 보문을 취할 때는 보문의 시제가 상위문의 사건시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거부하다, 거절하다’의 경우에는 (6)의 예에서 보듯이 ‘-을’ 논항의 명사절과 ‘-고’ 부사절 보문 모두 보문의 시제가 상위문의 사건시에 대해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미래 시제일 수도 있다.

- (5) ㄱ. 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것을/\*을 것을} 달랬다.
  - ㄱ'. 어머니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달랬다.
  - ㄴ. 기숙사 사감은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하는 것을/\*출입할 것을} 금지했다.
  - ㄴ'. 기숙사 사감은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 (6) ㄱ. 그는 ○○ 신문사에서 주최한 문학상을 {받는 것을/받을 것을/받기를} 거절했다.
  - ㄴ. 그는 ○○ 신문사에서 주최한 문학상을 {받지 않는다고/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에 선행하는 경우(보문시<상위문시)는

5 ‘바라다, 기대하다, 원하다’ 등 소망 동사의 보문은 문장 주어의 입장에서는 미정이지만, 보문의 시제는 다음과 같이 과거형을 취할 수 있다.

(i) 아버지는 내가 서울에서 성공했기를 바라신다.

앞서 (3ㄴ), (4)의 예에서 본 '후회하다'와 같이 지나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서술어의 보문이고,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보다 선행하거나 현재 시제인 경우(보문시≤상위문시)는 '발견, 비난, 고발, 고백' 등 지난 사건 또는 현재의 사건을 내용으로 함의하는 서술어가 취하는 보문들이다. 이들은 다음 예에서 보듯이 보문의 상대 시제가 과거 시제로 표현될 수도 있고, 현재 시제로 표현될 수도 있다.

(7)ㄱ. 노조는 회사측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ㄴ. 노조는 회사측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보문의 사건시가 상위문의 사건시 시점에서 현재 시제로 제한되는 경우(보문시=상위문시)는 '시작하다, 계속하다, 그치다' 등과 같이 사건의 시작-진행-종결을 표시하거나 '실패하다, 성공하다' 등의 결과 상황을 표시하는 동사, '찬성하다, 반대하다' 등과 같이 특정한 상태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동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의 판단 형용사, '알맞다, 충분하다' 등의 기준 형용사가 취하는 보문들이다. 이들은 앞서 (3ㄷ)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문의 시제가 상위 서술어의 시제와 동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제약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보문 시제의 제약 유무는 보문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보문 서술어가 시상 의미를 함의하고 있거나 [명령], [청유], [약속]의 보문을 취하는 경우에는 보문 시제의 제약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보문 시제의 다양한 제약 유형을 서술어의 의미 유형에 따라 기술할 필요가 있다.

### 3. 보문 서법의 제약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중에는 특정한 서법의 보문과 호응하는 서술어의 부류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보문의 서법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이 주로 어떤 서술어류와 결합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보문의 서법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보문 형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문의 서법 제약이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서법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보문 구조는 '-고' 보문이다. '-고' 보문은 인용문 구조의 주요 성분이다. 인용문에서 '-고' 보문은 피인용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문장 주어는 피인용문의 화자, '-에게' 논항은 피인용문의 청자를 나타낸다. 피인용문의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는 태도는 피인용문의

종결 형태로 나타나므로, 결국 '-고'에 선행하는 '-다/냐/라/자/마' 등은 문장 주어의 심리적 태도, 곧 서법을 반영하고 있다.<sup>6)</sup> 보문의 서법은 이와 같이 대체로 보문의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보문의 서법 제약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입장을 밝혀 둘 것이 있다. 보문의 서법이 상위 서술어의 종류를 결정하는가, 또는 상위 서술어의 종류가 보문의 서법을 결정하는가 하는 선택 방향성의 문제이다. 전자의 입장은 국어의 어순이 서술어가 뒤에 오는 구조임을 근거로 하고, 후자의 입장은 보문의 형태가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예측되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문과 보문 서술어의 결합 제약을 설명하는 데에 일방적인 선택 방향성의 논의는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보문의 서법과 서술어의 의미적 서법은 서로 제약하며 결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법의 제약을 예로 볼 때, 다음 (8)의 예와 같이 보문의 서법이 서술어의 의미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9)의 예와 같이 서술어의 의미가 보문의 서법을 제한하는 예도 존재한다.

- (8) ㄱ. 그는 나에게 함께 일해 보자고 말했다.
- 나. 그는 나에게 깊이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 (9) ㄱ. 그는 나에게 서술에 공원이 얼마나 많냐고 물었다.
- 나. 그는 나에게 서술에 공원이 얼마나 많냐고 자랑했다.

(8)의 예는 포괄적인 발화 의미를 갖는 '말하다'가 보문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청유], [명령]의 의미를 갖게 됨을 보여준다.<sup>7)</sup> 이는 보문의 서법 의미가 서술어의 의미를 제약하는 예이다. (9)의 예는 동일한 형태의 보문이 갖는 중의성이 보문 서술어의 결합을 통해 해소됨을 보여준다. 즉 (9ㄱ)의 보문은 의문형으로, (9나)의 보문은 감탄형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보문 서술어 '묻다'가 [의문] 보문을 논항으로 요구하고, '자랑하다'는 [서술] 또는 [감탄]의 보문을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위 서술어의 의미가

6 이 논문에서는 '서법(敍法, mood/modal)'을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명제 내용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화자 자신의 언어적 행위를 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자를 '명제적 서법', 후자를 '행위적 서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서술·감탄법은 명제적 서법으로, 약속·의문·명령·청유법은 행위적 서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서정수 1996: 297~302). 한편, 상위문 주어가 1인칭인 경우 행위적 서법의 보문은 '화행(話行, speech act)'의 성격이 강하다. 곧 발화를 수반한 화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행은 주어 1인칭에 제한되고(장석진 1987: 311), 보문의 상위문 주어는 인칭의 제약을 갖지 않으므로 이 문에서는 '화행' 대신 '서법'의 개념을 이용한다.

7 의미로서의 서법은 [명령], [청유] 등과 같이 각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는 형태로서의 서법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보문의 서법 의미를 제약하는 예이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보문 서법의 제약은 보문과 상위 서술어가 갖는 서법 의미가 서로 호응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이제 보문의 서법 유형을 살펴보자. 보문의 서법 유형은 다음과 같이 보문의 형태적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다.

- (10)ㄱ. 나는 선생님께 학생들이 교실에 모두 모였다고 말씀드렸다.  
 ㄴ. 원일이가 나에게 결혼식이 몇 시냐고 물었다.  
 ㄷ. 주인은 미나에게 오후 5시까지 모든 일을 마치라고 지시했다.  
 ㄹ. 김 사장이 나에게 같이 일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ㅁ. 그는 나에게 자기 딸이 얼마나 예쁘냐고 자랑했다.  
 ㅂ. 아버지는 내게 이 다음엔 더 좋은 피아노를 사 주마고 약속하셨다.

(10ㄱ~ㄷ)의 예에서 밑줄 친 보문은 각각 [서술],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약속]의 서법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 서법은 (10ㅁ)의 [감탄] 서법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 '-냐', '-라', '-자', '-마'의 형태를 통해 보문의 서법을 드러낸다. 그러나 문장의 서법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듯이, 보문의 서법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 (11)ㄱ. 나와 함께 일해 보지 않겠니?  
 ㄱ'. 그는 나에게 함께 일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ㄴ. 내가 이 다음엔 더 좋은 피아노를 사 주겠다.  
 ㄴ'. 그는 나에게 이 다음엔 더 좋은 피아노를 사 주겠다고 약속했다.

(11ㄱ)의 예는 의문형의 종결어미를 취하였으나, 화자의 의견을 묻는 동시에 제안의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 (11ㄱ')의 예는 보문의 형태는 의문형이지만, 보문 서술어 '제안하다'와 결합하여 [청유]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ㄴ) 역시 문장 형식은 서술형이지만, 청자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11ㄴ')의 예는 보문의 형태는 서술형이지만, 보문 서술어 '약속하다'와 결합하여 [약속]의 서법 의미를 갖게 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예는 서법 의미가 단순히 '-다/냐/라/자/마'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보문의 의미적 서법이 상위 서술어의 서법 의미와 결합 제약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서법 유형의 보문과 상위 서술어가 갖는 결합 제약 관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보문의 서법과 상위 서술어의 상관성

보문 서법	상위 서술어
[서술]	① 발표하다, 기록하다, 덧붙이다, 답하다, 보고하다, 고백하다, 밝히다, 설명하다, 알리다, 지껄이다, 증언거리다, 속삭이다 ② 생각하다, 짐작하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느끼다, 결정하다, 기억하다, 알다 ③ 자랑하다 / 따지다, 의심하다 / 전하다, 이르다, 대답하다, 주장하다, 빌다 / 강조하다 / 말하다, 말씀하다, 전화하다, 외치다, 소리치다, 큰소리치다, 약속하다
[의문]	① 묻다, 질문하다, 따지다, 의심하다 ② 조사하다, 의논하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금금하다 ③ 말하다, 말씀하다, 전화하다, 외치다, 소리치다
[명령]	① 주문하다, 지시하다, 시키다, 명령하다 / 요구하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청하다, 간청하다, 설득하다, 권하다, 부탁하다 ② 전하다, 이르다, 대답하다, 빌다, 주장하다 / 강조하다 / 말하다, 말씀하다, 전화하다, 외치다, 소리치다, 강조하다
[청유]	① 제안하다 / 청하다, 간청하다, 설득하다, 권하다, 부탁하다, 요구하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② 전하다, 이르다, 대답하다, 빌다, 주장하다 / 강조하다 / 말하다, 말씀하다, 전화하다, 외치다, 소리치다
[감탄]	감탄하다, 자랑하다 / 강조하다 / 말하다, 말씀하다, 소리치다
[약속]	약속하다, 큰소리치다

위의 표에서 서술어가 특정한 서법 유형의 보문과 결합의 제약을 갖는 것은 서술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술어 중에는 두 개 이상의 서법 유형을 보문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 따라 보문의 서법 제약을 갖는 서술어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서술]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중 ①의 부류는 발화 동사이고, ②의 부류는 사유 동사, 인지 동사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문의 서법이 [서술]로 제한된다. 그러나 ③의 부류는 서법 유형이 [서술]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랑하다’는 [서술], [감탄] 보문을 취할 수 있고, ‘따지다, 의심하다’는 [서술], [의문], ‘전하다, 이르다...’ 등은 [서술], [명령], [청유], ‘강조하다’는 [서술], [명령], [청유], [감탄], ‘말하다, 말씀하다...’ 등은 모든 서법 유형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이다.

[의문]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중 ①의 부류는 ‘-냐고’ 부사절 보문과 ‘-는지’ 명사절 보문을 모두 취할 수 있지만, ②의 부류는 ‘-는지’ 명사절 보문

만을 취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③의 부류는 역시 모든 서법 유형을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술어이다.

[명령]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중 ①의 ‘주문하다, 지시하다…’ 등은 보문의 서법이 [명령]으로 제한되고, ‘요구하다, 강요하다…’ 등은 [명령]과 [청유] 보문을 취할 수 있다. ②의 부류는 역시 다른 서법 유형의 보문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들이다.

[청유]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중 ①의 ‘제안하다’는 보문의 서법이 [청유]로 제한되고, ‘청하다, 간청하다…’ 등은 [청유]와 [명령] 보문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들이다. 역시 ②의 경우는 다른 서법 유형의 보문을 취할 수 있다.

[감탄]과 [약속]은 국어의 서법 분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 유형이다.<sup>8)</sup> 특히 서법의 형태적 대응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보문의 감탄법이 독자적인 종결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술법의 하위 범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9ㄴ)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의문] 보문을 취할 수 없는 ‘자랑하다’와 같은 서술어가 ‘-나고’ 보문을 취할 경우에는 [감탄] 보문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감탄]을 서법의 의미 자질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약속법의 경우도 주로 서술형의 종결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서술법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약속법 어미인 ‘-마’가 존재하고, 뒤에 논의할 주어 동일 제약의 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보이므로 위의 분류에서 서법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문의 서법 유형을 분류하여 서술어와의 결합 제약을 설명하는 것은 해당 서술어 부류가 일정한 유형의 변이 관계를 갖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과 같이 청자의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의 서법은 ‘-고’ 보문의 위치에 ‘-을 것’ 보문이나 ‘-도록’ 보문의 대치가 가능하고, 화자와 청자의 공동 행위를 제안하는 [청유]의 서법은 ‘-고’ 보문의 위치에 ‘-을 것’ 보문의 대치가 가능하다.

- (12)ㄱ. 사장은 직원들에게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라고 강요하였다.  
 ㄴ. 사장은 직원들에게 하루에 12시간을 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ㄷ. 사장은 직원들에게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 (13)ㄱ. 그는 나에게 함께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ㄴ. 그는 나에게 함께 일해 볼 것을 제안했다.

(12ㄱ)의 예문에서 ‘강요하다’의 ‘-고’ 보문은 [명령]의 서법을 가지고 있

8 서정수(1996: 302)에서는 감탄법을 서술법의 하위 범주로 다루고, 남기심·고영근(1985/1997: 343)에서는 문체법의 범주에서 약속법을 서술문의 하위 범주로 다룬다.

다. 이는 (12ㄴ)의 ‘-을 것’, (12ㄷ)의 ‘-도록’ 보문으로 대치될 수 있다. 또한 (13ㄱ)에서 ‘제안하다’의 ‘-고’ 보문은 [청유]의 서법을 가지고 있으며, (13ㄴ)과 같이 ‘-을 것’ 보문으로의 대치가 가능하다.

하나의 서술어가 다양한 서법의 보문을 취하는 경우에도 ‘-도록’ 보문의 대치는 [명령]의 서법에 제한하여 나타나고, ‘-을 것’ 보문의 대치는 [명령], [청유], [약속]의 서법에서 나타난다.

- (14) ㄱ. 나는 그에게 내 대신 회사일을 {맡아 달라고/맡아 주도록/맡아 줄 것을} 청했다.
- ㄴ. 나는 그에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가도록/갈 것을} 청했다.
- (15) ㄱ. 그는 구민들에게 구민이 주체가 되어 도봉구를 {발전시키라고/발전시키도록/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 ㄴ. 그는 구민들에게 자신과 함께 도봉구를 {발전시키자고/??발전시키도록/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 ㄷ. 그는 구민들에게 자기가 도봉구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설치하겠다고/\*설치하도록/??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 (16) 그는 구민들에게 도봉구를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발전시키도록/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14)의 예에서 상위 서술어 ‘청하다’는 (14ㄱ), (14ㄴ)과 같이 [명령], [청유]의 보문을 취할 수 있다. [명령]의 보문인 경우에는 (14ㄱ)과 같이 ‘-도록’ 부사절 보문으로 대치할 수 있지만, [청유]의 보문을 취할 경우에는 (14ㄴ)과 같이 ‘-을 것’ 보문의 대치만이 가능하다. (15ㄱ~ㄷ)의 예에서는 [명령], [청유], [서술] 등 다양한 서법의 보문을 취할 수 있는 서술어 ‘강조하다’의 구문을 볼 수 있는데, (15ㄱ)의 예처럼 [명령]의 보문인 경우에는 ‘-도록’, ‘-을 것’ 보문의 대치가 가능하지만, (15ㄴ)과 같이 [청유]의 보문일 경우에는 ‘-도록’ 절의 대치가 불가능하고, [서술] 보문일 경우에는 (15ㄷ)처럼 ‘-도록’, ‘-을 것’ 보문의 대치가 모두 어색함을 볼 수 있다. 또한 (16)과 같이 [약속]의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는 ‘-도록’ 보문의 대치가 불가능하고, ‘-을 것’ 보문의 대치는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문의 서법 의미 유형은 [서술],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약속]으로 분류된다. 보문의 서법 제약은 보문의 서법 의미와 상위 서술어가 가진 서법 의미간의 결합 제약으로 볼 수 있다. 보문의 서법을 위와 같이 유형화하는 것은 [명령], [청유], [약속]의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구문이 갖는 일정한 유형의 변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음에 논의할 보문과 상위문 성분의 동일 지시 제약을 설

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4.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

여기에서는 보문 내의 주어가 상위문의 구성 성분과 동일 지시되는 제약에 대하여 논의한다. 보문의 주어가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현상은 보문의 서법에 의한 제약, 상위 서술어의 어휘 의미에 의한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 중에는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제약이 나타나는 원인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 후 보문 주어가 상위문의 어느 성분과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첫째, 보문의 서법 중에서 [약속], [명령], [청유]의 보문은 상위문 성분과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이 필수적이다.

[약속]의 보문은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반드시 동일 지시되어야 하며, [명령]의 보문은 상위문의 '-에게' 논항과 보문 주어 논항 사이에 동일 지시 제약이 존재한다. [청유]의 보문은 그 의미 특성상 상위문의 주어와 '-에게' 논항이 함께 보문의 주어 논항과 동일 지시되어야 한다.

(17) ㄱ. 그는 구민들에게 { $\emptyset_i$ /\*구민들이} 도봉구를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ㄴ. 사장은 직원들에게 { $\emptyset_i$ /\*영이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라고 강요하였다.

ㄷ. 그는 나에게 { $\emptyset_i$ /\*민아가} 함께 일해 보자고 제안했다.

(17ㄱ)의 예는 [약속] 보문을 논항으로 취할 때 상위문의 주어가 보문의 주어와 동일 지시 제약을 가짐을 보여준다. (17ㄴ)의 예는 서술어 '강요하다'가 [명령] 보문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에 상위문의 '-에게' 논항과 보문의 주어가 동일 지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17ㄷ)은 [청유] 보문을 논항으로 취하는 '제안하다'의 구문에서 상위문의 주어 논항과 '-에게' 논항이 함께 보문의 주어와 동일 지시됨을 보여준다. [청유] 보문의 제약은 청유문의 특성상 의미적 주어가 원화자와 원청자 공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7)의 예에서는 보문 서술어의 어휘 의미에서도 [서법] 의미가 드러나므로, 굳이 보문의 서법에 의한 동일 지시 제약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문 서술어의 어휘 의미에 의한 제약이라고 보아도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단일한 서술어가 다양한 서법 유형의 보문을 취할 때 동일 지시 제약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은 보문의 서법 의미이다.

(18) ㄱ.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강조하셨다.

- ㄴ. 그는 구민들<sub>i</sub>에게  $\emptyset_i$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도봉구를 발전시키라고 강조했다.
- ㄷ. 그는 구민들<sub>i</sub>에게  $\emptyset_i$  자신과 함께 도봉구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서술어 ‘강조하다’는 (18)의 예에서 보듯이 [서술], [명령], [청유] 등의 보문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이 때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 양상을 결정하는 것은 보문 서술어의 종류가 아니라 보문의 서법이다. [서술] 보문인 (18ㄱ)에서는 동일 주어 제약이 없지만, [명령] 보문인 (18ㄴ)과 [청유] 보문인 (18ㄷ)에서는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명령], [청유], [약속] 등의 보문에서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서법의 본질이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촉구하거나, 또는 화자의 행동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문 구조에서 원화자와 원청자는 각각 상위문 주어와 ‘-에게’ 논항으로 실현되므로, 보문의 주어는 상위문 주어 또는 ‘-에게’ 논항과 동일 지시 제약을 갖게 된다. 즉 [명령], [청유], [약속] 서법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들 서법을 취하는 보문은 반드시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다.

두 번째, 서술어의 어휘 의미에 따라 보문 주어가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이다.

- (19) ㄱ. 철호<sub>i</sub>는 경찰서에서 ( $\emptyset_i$ /\*영이가) 그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 ㄴ. 철호<sub>i</sub>는 이제부터 ( $\emptyset_i$ /\*동생이) 집안 일을 돌보겠다고 결심했다.

‘자백하다’류나 ‘결심하다’류는 모두 보문 주체와 직접 관련된 사태를 보문 내용으로 요구하는 동사류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보문의 의미적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동일 지시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을’ 논항과 동일한 성분일 것이 요구된다.

- (20) ㄱ. 어머니는 영철<sub>i</sub>를 ( $\emptyset_i$ /\*민철이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셨다.
- ㄴ. 경찰은 내 동생<sub>i</sub>를 ( $\emptyset_i$ /\*내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 ㄷ. 선생님은 정현<sub>i</sub>를 ( $\emptyset_i$ /\*미영이가) 착하다고 생각하신다.

위의 예에서 보문의 주어는 반드시 상위문의 ‘-을’ 논항과 동일 지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ㄱ, ㄴ)과 (20ㄷ)은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을’ 논항과 ‘-고’ 보문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 (21) ㄱ. 어머니는 영철이를  $\emptyset$  나무라셨다.  
 ㄴ. 경찰은 내 동생을  $\emptyset$  의심하고 있다.  
 ㄷ. ??선생님은 정현이를  $\emptyset$  생각하신다.

통사적으로 (20ㄱ, ㄴ)의 예는 (21ㄱ, ㄴ)과 같이 ‘-고’ 보문을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되지만, (20ㄷ)의 예는 ‘-고’ 보문을 생략할 경우 (21ㄷ)과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문장 의미가 바뀌게 된다. 이는 (20ㄱ, ㄴ)의 ‘-고’ 보문은 잠재적 보문이고, (20ㄷ)의 ‘-고’ 보문은 필수적 보문임을 보여준다.<sup>9)</sup> 또한 (20ㄱ, ㄴ)의 ‘-을’ 논항이 ‘나무라다’, ‘의심하다’의 구조적인 목적어인 반면, (20ㄷ)의 ‘-을’ 논항은 성분 주제의 성격을 갖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21ㄷ)의 예문에서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을’ 논항이 성분 주제로 해석되는데, 주제에 대한 서술 구조인 보문이 없기 때문이고, 문장이 성립되지만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을’ 논항이 ‘생각하다’의 구조적인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로서 이는 ‘-을’ 논항이 성분 주제의 성격을 갖는 (20ㄷ)과 다른 구조로 해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의 예문들은 모두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을’ 논항과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마지막으로 ‘-기’ 보문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반드시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심리 동사 및 심리 형용사, 시상 동사가 취하는 ‘-기’ 보문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 (22) ㄱ. 민수는 { $\emptyset_i$ /\*아내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ㄱ'. 민수는 { $\emptyset_i$ /아내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ㄴ. 나는 { $\emptyset_i$ /\*그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가 두렵다.  
 ㄴ'. 나는 { $\emptyset_i$ /그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  
 ㄷ. 나는 { $\emptyset_i$ /\*동생이} 태권도 배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ㄷ'. 나는 { $\emptyset_i$ /\*동생이} 태권도 배우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22ㄱ, ㄴ, ㄷ)의 예에서 ‘좋아하다’, ‘두렵다’, ‘계속하다’ 등의 서술어가 취하는 ‘-기’ 보문의 주어는 반드시 상위문의 주어와 동일 지시되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심리 동사 구문이나 심리 형용사의 ‘-는 것’ 보문 구성 (22ㄱ', 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 시상 동사 구문

9 잠재적 보문은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이지만, 서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에서는 필수적인 절 논항을 지칭한 것이다. Jackendoff(1990)의 ‘Implicit argument’, 이병규(1998)의 ‘잠재 논항’, 유현경(1998)의 ‘수의 논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인 (22c, c')의 예에서는 '-기' 보문 뿐만 아니라, '-는 것' 보문 구성에서도 같은 제약이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기' 보문의 동일 주어 제약이 '-기' 보문을 취하는 모든 서술어 구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기를 바라다' 류의 소망 동사 구문에서는 동일 주어 제약이 나타나지 않고, '-기에 알맞다' 등의 기준 형용사 구문에서는 보문과 상위문 성분의 동일 지시 제약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23) ㄱ.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다.

ㄴ. 이 산이 가족들이 함께  $\emptyset$  동반하기에 알맞다.

(23)의 예는 '-기' 보문의 특성에 의한 동일 주어 제약도 상위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심리 형용사, 심리 동사, 시상 동사 구문의 '-기' 보문은 주어의 동일 제약을 갖지만, 소망 동사의 '-기' 보문은 동일 주어 제약이 없고, 기준 형용사의 '-기' 보문은 보문 내 성분이 상위문 주어와 동일 지시되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 보문의 특성에 의한 동일 지시 제약도 결국은 상위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을 그 원인에 따라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보문 주어가 상위문 주어와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요인으로 보문 구조의 문법적·의미적 특질이나<sup>10)</sup> 화용적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sup>11)</sup> 여기에서는 주로 상위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보문의 서법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 주어 제약을 설명하였다.

10 예를 들어, 보문 자체가 1인칭 주어 제약을 갖는 경우에는 보문 주어와 상위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다음의 예는 보문의 주어 제약이 의무적이지 않은 구문에서 (ii)와 같이 의지 표현 선어말어미 '-겠-'이 포함될 경우에 주어-주어 동일 제약이 나타남을 보여 준다.

(i) 철이는 { $\emptyset$ /영이가} 소풍날 김밥을 준비해 올 거라고 말했다.

(ii) 철이는 { $\emptyset$ /\*영이가} 소풍날 김밥을 준비해 오겠다고 말했다.

11 Chomsky(1981:78-79)에서는 통제 이론을 언급하면서 많은 요인들, 예컨대 구조 배열, 동사의 내재적 성질, 그리고 그 외의 의미적, 화용적 고려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국어 보문의 제약에 대하여 시제, 서법, 보문 내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문의 시제 제약과 서법 제약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이들 제약이 보문을 취하는 서술어의 어휘 의미적 유형과 일정하게 대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문 내 주어가 상위문의 구성 성분과 동일 지시 제약을 갖는 현상은 보문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보문의 서법, 보문의 형태 등 여러 요인이 동기가 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보문의 서법과 보문의 형태 제약도 서술어의 어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문 주어의 동일 지시 제약도 결국은 서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서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를 통해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서술어의 의미 구조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전체 서술어의 의미 구조 모형을 기술하는 체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  
 남기십(1978),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남기십·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방성원(2001), 국어 보문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 동아.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이병규(1998), 잠재 논항의 개념 정립, 국어 문법의 탐구 IV, 태학사.  
 장석진(1987), 한국어 화행 동사의 분석과 분류, 어학연구 23-3, 서울대 어학연구소.  
 정주리(1995), 국어 보문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홍제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 동아.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 Foris  
 Pubrications.  
 Grimshaw, J.(1979), Complement Selection and the Lexicon, *Linguistic Inquiry* 10-2,  
 pp.279-326.



Jackendoff, R.(1990), *Semantics and Cognition*, The MIT Press.

Noonan, M.(1985), Complementation, Timothy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II-Complex Constructions*, Cambridge Univ. Pres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30-701

Email: newslift@chollian.net

전화: 961-0782

접수일자: 2월 5일

게재일자: 4월 3일